



밀양연극촌에 기거하면서 내 생애 처음으로 나만의 방을 얻었다. 여기서 턱을 괴고 앉아 있으면 세상이 저 멀리 보이는데...

# 비밀스런 양지 - 密陽에서

글\_ 이윤택 극작연출가

요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밀양에서 어떻게 보내느냐고 묻는 것이 인사말처럼 되어버렸다. 1999년 12월, 그러니까 20세기의 마지막 겨울 나는 연희단거리패 단원 60여 명을 이끌고 서울을 떠났다. 그 이후... 어떻게 지내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밀양에서 보내는 심정은 어떠한가 밀양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한가 등 나에게 대한 근황을 묻는 지기(知己)들에게 무언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, 워낙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형클어져 있어서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왔다. 그러던 차 우연히 찍은 이 사진 한 장으로 나의 근황을 대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.

나는 밀양연극촌에 기거하면서 내 생애 처음으로 나만의 방을 얻었다. 폐교되기 전 학교 관리인 홀아비가 쓰던 사택을 개조하여 쓰고 있는데 이 집이 예사롭지가 않다. 옛 구들장이 있고 방바닥은 대나무로 깔았고 벽은 황토 그대로이고 천장도 서까래와 나무 판자로 이은 그대로이다. 일체의 치장이나 장식이 없는 이 흙집이 내게는 여간 편한 곳이 아니다.

여기서 턱을 괴고 앉아 있으면 세상이 저 멀리 보이는데 세상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는 않는 모양이다. 아직 누적된 피로가 가셔지지 않은 듯하고 근심과 안쓰러움이 눈 가장자리와 이마에 배어 있다. 큰 머리통이 무거워 손바닥으로 턱을 받치고 있는 셈인데, 반쯤 감은 실눈 사이로 세상에 언더리가 난 느낌이 완연하다. 그러나 여전히 등을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곧추세운 전투형 자세라서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. 게다가 실눈 사이를 좀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은퇴하거나 현실을 초월한 도인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. 여전히 세상의 빈 곳을 노려보고 언제 어디서부터 치고 들어가야 할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싸움닭의 근성과 긴장이 느껴진다. 오히려 무심한 쪽은 손과 발이다. 새까맣게 그은 내 조막손과 몽툰한 발가락이 태평스럽다. 내가 비밀스런 양지라 이름 붙인 곳 밀양에서 배운 것은 바로 이 손과 발의 건강함과 낙천성이다. 손발이 튼튼하면 머리통이 아무리 무겁고 얼굴이 찌그러진다 하더라도 이 언더리나는 세상을 버텨 나갈 수 있다. 나는 밀양에서 그렇게 앉아 버티면서 세상과 거리를 느끼고, 그 거리만큼 너덕해진다. 그리고 보니 이 사진에서 전체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조금은 너덕해 보인다. 그 너덕함으로 무거운 머리통과 면도날 같은 눈길을 숨길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상당히 여유 있게 세상을 바라볼 수는 있게 된 셈이다. 🌈